

##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참고 자료	
보도	2017. 3. 10. (금) 조간	배포	2017. 3. 8.(수)
담당부서	상호여전감독국	김태경 국 장(3145-7550), 이현석 팀 장(3145-7440)	

###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③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법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른일곱 번째 금융꿀팁으로,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법”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 <별첨> 금융꿀팁 200선 - ③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법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행복해 지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제 목	카드 포인트 . 할인혜택 100% 활용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례1)</b> 직장인 A씨는 동료 B씨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포인트 잔액을 조회했으나 백화점 및 대형마트 할인에 집중된 카드였기 때문에 그동안 포인트 적립이 거의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됨</li>   <li>● <b>(사례2)</b> C씨는 가족과 함께 OO가맹점에서 20만원 어치 식사를 하고 카드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5%를 할인 받아 19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였음. 그러나 다음 달 OO가맹점을 다시 이용했을 때에는 할인서비스 이용조건인 전월실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했고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전월에 혜택을 받았던 19만원은 실적산정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됨</li>   <li>● <b>(사례3)</b> 직장인 D씨는 야간 대학교 등록금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포인트가 꽤 적립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결제금액에 대한 포인트가 전혀 적립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함</li>   <li>● <b>(사례4)</b> 자영업자 E씨는 평소 차량 이용이 많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주유할인이 되는 카드를 선택했음에도 원하는 등급의 할인을 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친구인 F씨는 가족의 카드이용 실적이 합산되어 주유할인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li>   <li>● <b>(사례5)</b> △△카드를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몇 개월 동안 OO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G씨는 OO카드사로부터 몇 차례 전화나 메일을 받았으나 바쁜 일상 속에 주의 깊게 볼 시간이 없었고 나중에 그동안 적립되었던 포인트가 순차적으로 소멸된 사실을 알게 됨</li> </ul>

☞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법'을 기억하고 활용해 보세요!

### 카드 포인트 . 할인혜택 100% 활용법

- 1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
- 2 포인트 . 할인혜택 이용조건 숙지
- 3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족카드 활용
- 4 「파인」에서 잔여 포인트 수시 확인
- 5 포인트로 "교통카드 충전"부터 "사회기부"까지 다양하게 활용

#### 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자신의 주 이용 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여야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적립된 포인트의 활용도나 할인혜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소비자는 해외가맹점 이용 시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선택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비패턴을 분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한편, 평소 본인이 카드 포인트 이용에 관심이 적은 편이라면 되도록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를 발급 받거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1~2가지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② 포인트 . 할인혜택 이용조건 숙지

카드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 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조건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카드사들이 포인트나 할인혜택

꿀 팁

## 꿀 팁

이용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월실적 산정시 제외대상” 또는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할인 받은 해당 매출 건 전체에 대해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할인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대학등록금, 무이자 할부,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③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족카드 활용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각각 다른 카드를 이용할 경우 전월 실적 등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카드로 묶어서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조건 충족이 용이해져 보다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카드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 상품이 있고 가족카드의 단점\*도 있으므로 동 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카드사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예시) i) 본인회원의 신용을 나누게 되므로 카드한도가 부족해 질 수 있음
- ii)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카드사용액을 모두 책임지게 됨
- iii) 본인회원의 카드가 정지될 경우 가족카드도 사용이 정지됨

### ④ 「파인」에서 잔여 포인트 수시 확인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됩니다. 신용 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15⑥)에 따라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매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스스로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멸되기 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코너를 클릭하거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정 카드사에 여러 개의 카드가 있어 그 중 일부를 해지할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는 유지됩니다.

참고로 현재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는 2조 1,869억원(16년말 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⑤ 포인트로 “교통카드 충전”부터 “사회기부”까지 다양하게 활용

카드 포인트는 잘만 활용하면 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보이지 않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에 무관심하거나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가 약 1,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 ~ 2016년까지 7년간 소멸된 포인트 액수를 합하면 총 8,953억원에 달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사회기부까지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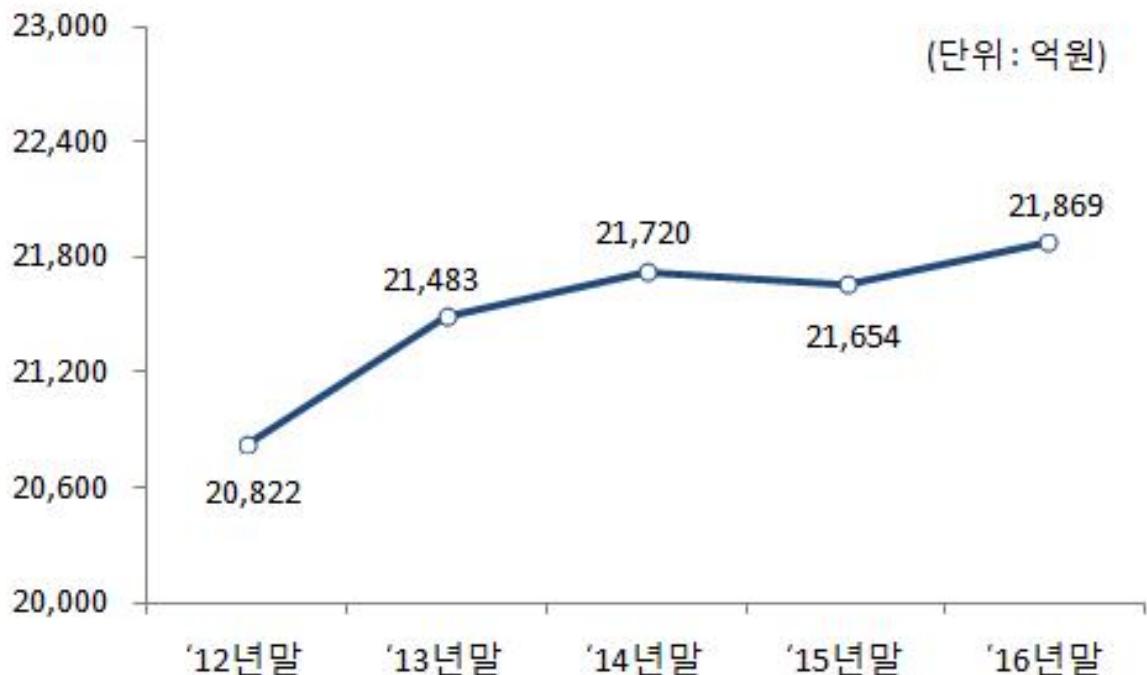
우선,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로 카드 사용금액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인지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포인트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옮기거나 대출이자 납입, 보험료 납입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보통 1포인트 = 1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는 현금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기부는 잠자고 있는 포인트를 가슴 따뜻하게 쓰는 것은 물론 '세금혜택'이라는 덤까지 챙길 수 있게 해줍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 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현재는 납부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 택스([www.cardrotax.or.kr](http://www.cardrotax.or.kr))로 접속해서 신용카드 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차감됩니다.

#### <별 첨> 카드 포인트 잔액 및 소멸포인트 통계

## ◇ 카드 포인트 잔액 추이



## ◇ 카드 소멸포인트액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소멸액	1,305	1,399	1,352	1,330	1,390